

예수님 저 당신께 의탁하나다

The Queen of Peace

# 평화의 모후

2013, 3,4 / 제65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들을 기도로 부른다.  
죄악이 너희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이끌고 있으나 나는 너희들이  
하느님의 일과 거룩함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왔단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죄악과 선의 싸움으로 인하여  
너희 힘을 쏟으며 갈등하고 있구나.  
그러니, 나의 자녀들아,  
기도, 기도, 기도가 너희의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단순한 여정이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주어 고맙다"

2013년 2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표지 설명 : 자비의 예수님  
제공 : 성화세계교회미술연구소  
작가 : 정동주 안드레아

3.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4.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5. 메주고리에와 프란치스코 교황
6.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네딕토 16 교황
8. 티 없는 내 성심의 다락방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10. 모든 인류에게 내 자비를 보낸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삶과 사명
13. 어머니의 고통에 비유할 고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조 죠브코 신부
16. 메주고리에의 열가지 비밀  
피터 루비치 신부
18. 믿음의 눈으로 성모님을 뵈도록 기도하십시오  
발현 목격증인 마리아 파블로비치 루네티
22. 여기는 천국이야
23. 예수님은 정말 하느님이시구나!  
- 성체와 묵주기도 고해성사의 은총 -
25. 다시 묵주기도를 시작하여라  
포르노 중독을 치유시켜 주신 메주고리에 성모님
27. 후원명단 및 평화의 모후 신청서

##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원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위하여...
- 선교회 지도 신부님과 모든 사제들을 위하여...
- 성모님, 새로운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000 원장 수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초기 전립선 암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소서.
- 000의 영육간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000의 눈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아들이 졸업후에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봉헌합니다.
- 저와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선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중인 000의 치유를 위하여...
- 성모님, 000 신부님 건강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종신 부제로서 하느님께 찬미, 영광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 성모님께 가정 일치와 화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 000 가정과 000 가정을 위하여 기도와 미사 부탁드립니다.
- 모든 이들이 성모님을 가정의 모후로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성모님, 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 성모님,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낙태된 태아들의 영혼을 돌보아주세요.
- 선교회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님들을 예수성심과 성모 성심께 봉헌합니다
- 저희 가족의 내적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청합니다.
- 엄마의 콩팥을 이식 받은 딸의 건강과 평화가 있기를 성모님께 기도드립니다.
- 아들 000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암에 걸린 딸이,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영육간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길...
- 저희 가족이 하느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하시고 성가정이 되게 하소서.
- 성당에 나가기 시작하여 영세를 받기로 했으니 교리공부를 잘하고 믿음을 주세요.
- 평화의 모후를 통해 성모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빌면서
- 암으로 투병 중인 딸에게 치유의 은총과 치매를 앓고 있는 언니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좋은 배우자를 선사하시어 주님 뜻대로 선행과 봉사를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30년동안 미사 반주를 해왔는데 남은 생애는 잘 마칠수 있도록 성모님께 기도해 주세요.
- 마음의 상처가 있는 아들의 내면이 치유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주소서.
-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이 안정을 찾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Danny의 세례와 뉘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평생 주님과 함께하길 기도해 주세요.
- 불안한 현실과 진로를 봉헌하오니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 성모님, 언니와 동생 가정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보살펴주세요.
- 남편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날을 봉헌하오니 성모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소서.

- 
- 4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증인들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드립니다.
  - 모든 미사와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때 봉헌해드립니다.



## 제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 76)교황은 청빈과 겸손의 대명사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 받는 아르헨티나 가톨릭 교회의 현대화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도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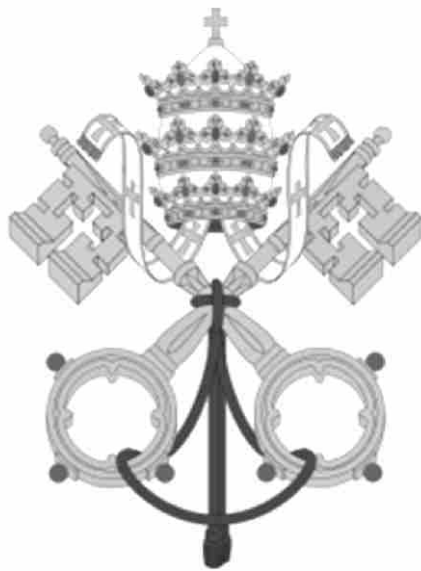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05년 콘클라베에서도 유력 후보로 꼽혔으나 베네딕토 16세에게 양보했으며 8년 만에 소집된 회의에서 추기경단의 폭넓은 지지로 교황에 선출됐다.

프란치스코교황은 평생을 매일 오전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와 고행을 통해 봉사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주교직에 오른 뒤에도 바티칸에서 제공하는 대 주교관저에 살지 않고 인근의 작은 아파트에서 거주했으며 평소에도 음식도 직접 만드는 청빈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운전기사 없이 시내 버스를 타고 다니며 주변과는 늘 친근한 만남을 하고 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교황명으로 청빈과 겸손

으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아씨시의 성인 프란치스코를 택한 것도 이같은 평소의 소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온 것에 기인하다고 한다.

독일어와 스페인어, 이탈리아에 능통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출신 철도노동자 가정의 5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공립학교에서 화학 기술자가 되려고 했으나 22살이 되는 1958년 예수회에 입문하였으며 1969년 사제서품을 받았다. 또한 산미겔 산호세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신학교에서 철학과 문학을 가르쳤다. 신학 수업 이외에 칠레에서도 인문학을 전공했으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귀국해 후학 양성에 힘썼다. 1970년대 후반까지 아르헨티나 지방에서 사목 활동을 했으며, 36살이던 1980년에 산미겔 예수회 수도원의 원장직

을 수행했다.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에 올랐으며 200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M**





## 메주고리예와 프란치스코 교황

2013년 3월 4일과 6일 아르헨티나의 마이크로 스튜디오와 부에노스 에어리스의 루나 파크에서 목격 중인 이반 드라기체비치의 성모님 발현이 있었다. 현 교황께서는 (베르고그리오의 추기경) 자신의 관할 교구 신자들이 성모님의 발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10,000여명이 참석했다. Children of Medjuroje의 엠마누엘 수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관련하여 있었던 세가지의 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다.



"베르고 글리오 추기경님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는 요조신부님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당코신부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활동도 도와 주셨으며, 올해 3월초 교황 선출을 위해 로마로 떠나기 전에는 발현 목격 중인 이반이 루나 파크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메주고리예 교구의 요조 조브코 신부는 크로아티아 일간지 슬로보나 달마시아에서 1990년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였을 때 만났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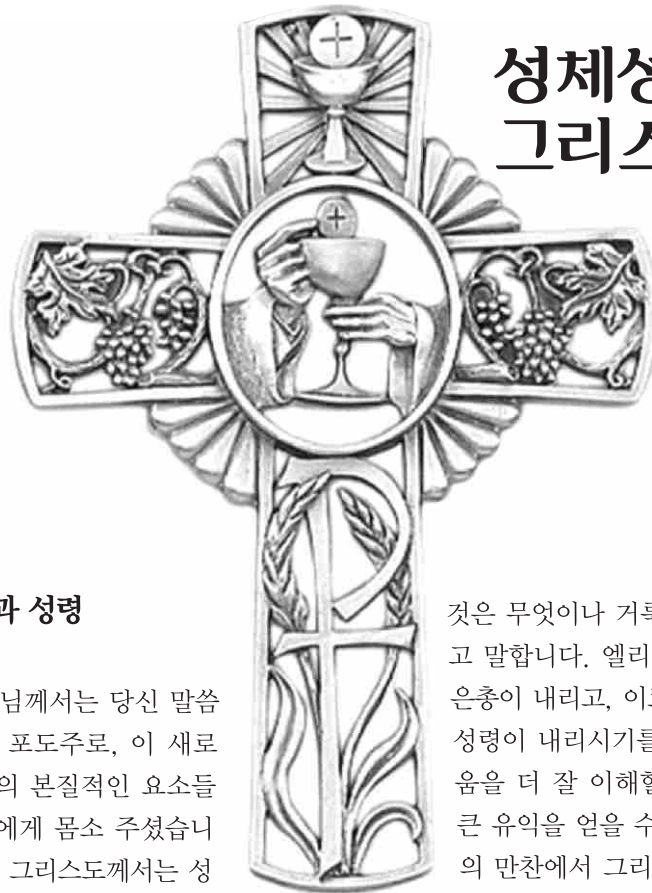
"제가 부에노스 에어리스에 있을 때

저는 교황님과 함께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흥미로워했으며 마지막 시간에는 저에게 기도를 청했습니다. 저는 훌륭하고 선량한 그분을 위해 마음을 다해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톨릭 교회와 우리들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분은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사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 주신 은총의 열매입니다. 그분은 과감하게 우리의 실패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교황으로 선출되자 제일 먼저 로마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을 방문하여 성모님께 꽃다발을 봉헌하고 청원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의 성모님처럼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보고, 느끼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회는 굳은 믿음과 기도안에 굳건하게 서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항상 손에 묵주를 들고 있으며 늘 성서를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분명한 열쇠입니다. 교황님은 우리에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생활속에서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M**

(medjugorjetoday.tv, children of Medjuroje, Spirit Daily is circulating this article에서 발췌)



#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 예수님과 성령

12. 주님께서는 당신 말씀과 빵과 포도주로, 이 새로운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몸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 마리아

께 잉태되었고 (마태 1, 18; 루카 1, 35), 성령 안에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즐거워하셨으며 (루카 10, 21),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실 수 있었습니다(히브 9, 14).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마리아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내려오시어(사도 2,1-4),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할 사명을 시작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성찬례부터 시작하여 당신 교회 안에 계속 현존하시며 활동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 성령과 성찬례 거행

13.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은 「교리 교육」에서,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예물에 당신 성령을 보내 주시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해주시도록 간청합니다. 성령의 손길이 닿는

것은 무엇이나 거룩해지고 완전히 변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처럼 사제는 "희생 제물 위에 은총이 내리고, 이로써 모든 영혼이 뜨거워지도록" 성령이 내리시기를 청합니다. 감사기도의 풍요로움을 더 잘 이해할 때 신자들의 영적 생활은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기도에는,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함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내려 보내주시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고 "공동체 전체가 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청하는 성령 청원이 있습니다. 주례 사제가 제대에 놓인 빵과 포도주의 예물 위에 청원하는 성령은, 신자들을 '한 몸으로' 모으시어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영적 예물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 성찬례, 교회가 시작된 원리

14. 성체성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신자들을 당신의 '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신부이며 몸인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창에 찢린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전합니다(요한 19, 34). 이는 바로 성사의 상징입니다. "자기들이 찢은 이"(요한 19, 37)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희생제와 성찬례와 교회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삽니다." 성

## 주님의 활짝 열린 팔에 안겨 들어가, 신자들은 하나이요 갈릴 수 없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체성사는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 몸으로 계속 자라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의 희생제를 통하여 교회에 당신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례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거행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1요한 4, 19)는 요한 사도의 말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은 언제까지나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성찬례와 교회의 친교

15. 그리스도교 전통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성찬의 몸, 교회 몸을 가리키는데에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당신의 선물을 통하여 교회의 신비를 분명하게 가리켜 주셨습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교회 친교의 일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그들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또 개별 교회들로 구분해 주는 성찬례 거행에서 새로워집니다.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 교회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성찬에서 주님의 성체의 단일성과 불가분성은,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는 교회인 그리스도 신비체의 단일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활짝 열린 팔에 안겨 들어가, 신자들은 하나이요 갈릴 수 없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 성찬례와 성사들

#### 교회의 성사성

16. 실제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교회의 모든 영적 선이 내포되어 있다. 곧 우리의 '파스카' 이시며 살아 있는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주는 당신 살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노동과 모든 피



조물을 당신과 하나 되어 봉헌하도록 부르시고 이끄신다."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성찬례가 다른 성사들과 또 그리스도인 생활과 맺는 이러한 밀접한 관계는 성사인 교회 자체의 신비를 생각해볼 때 가장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습니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 표징이며 도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하나 된 백성"이라고 표현한 교회는 삼위일체 친교의 성사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보편 성사"라는 사실은, 한 분이신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다다르시는 방식이 성사적 '경륜'으로 어떻게 궁극적으로 결정되는지 보여 줍니다. 교회는 일곱 성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를 표현합니다. 이 성사 덕분에 하느님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신자들의 삶 전체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각 성사와 성찬 신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교 대의원회의 교부들이 지적한 몇 가지 요소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M**

(다음 호에는 '교회의 성사성'이 연재됩니다.)

(주교 협의회 <http://www.cbck.or.kr> 교황문헌 '사랑의 성사'에서 발췌)



프랑스 전국에 걸친 여행을 너는 오늘 이 공경받는 성지에서 마감하고 있다. 그 보름 동안 너는 거의 스무 군데에서 다락방 모임을 열었고, 내 '운동'의 주교들과 사제들 및 많은 신자가 거기에 참여했다. 어느 곳에서나 이들은 제단에 장엄하게 현시된 '예수 성체' 대전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티 없는 내 성심에 자신들을 새롭게 봉헌했다. 그래서 너는 그 모든 곳에서 네 '천상 엄마'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보며 목상에 잠겼다. 이 특별한 여행을 네가 성령 강림 대축일인 오늘로 마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의 징표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히 쇄신된 새 교회와 새 인류가 이제 내 티없는 성심 안에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정화와 대환난의 이 결정적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너희에게 당부하거니와, 내가 엄마로서 그토록 간곡히 요청해 온 기도의 다락방이 더욱 많아지게 해다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이,

이 다락방들을 사제들 사이에 확장시켜라. 너희의 관심거리며 갖가지 많은 일은 내게 맡기고, 세속의 안일한 유혹에 굴복하지 마라. 단순함과 겸손과 작음의 정신으로 돌아오너라. '티없는 내 성심'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심하노라면 너희 자신의 눈으로 '두 번째 성령강림'을 보게 될 것이다.

어린이들을 다락방에 모아 들여라. 이들의 순진무구한 기도가 내 기도와 합해지면, 오늘날 중재와 보속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나의 이 조그만 아이들의 기도 덕분에 너희가 이미 수

## 티 없는 내 성심의 다락방

2006. 5. 다락방(체나쿨룸) 피정 성모님메시지  
496. 비탄 속의 위로

많은 악에서 얼마나 보호를 받았는지 모른다! 나는 젊은이들도 다락방에 함께 모여 '엄마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고 싶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며, 부드러운면서도 굳건하게 선과 사랑과 순결과 성덕의 길로 인도하는 이 엄마의 현존을. 가정 다락방들은, 내가 역시 요청해 온 것이거니와, 그들 각 가정에 주는 하나의 귀한 선물이다. 이는 가정들이 각각의 다락방에서 내 현존의 기쁨과 내 도움에서 오는 위로를, 또 가정의



## 오소서, 성령님,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악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음을 실제로 체험케 하려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두 번째 성령 강림'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다락방들에 내려오실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교회와 온 인류가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기도의 다락방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미리 대환난을 만난 너희 시대의 비탄에 대한 위로로 성령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하느님 없이 살고 있는 인류의 비탄 속에 성령의 위로가 내려오리니, 그분은 천상 성부의 영광이 완전한 찬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이끄셔서, 새로워진 인류와 그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사이에 사랑겨운 새 혼인이 맺어지게 하실 것이다.

갈라져 암흑에 덮여 있고 상처 입은 교회의 비탄 속에 성령의 위로가 느껴지리니, 그분께서 교회를 굳셈과 슬기, 은총과 성덕, 사랑과 빛으로 옷 입혀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죄와 죽음의 그늘에 잠겨 사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영혼들의 비탄속에 성령의 위로가 내려오리니, 그분께서 하느님 현존의 빛, 하느님 은총의 생명, 사랑의 불을 주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서 그들 안

에 영원히 머무르시도록 하실 것이다. 대환난의 비탄속에 '주님의 영'의 거룩한 현존의 위로가 내려오리니, 그분께서 너희를 기다리는 사건들을 통해 너희로 하여금 신뢰와 용기와 희망, 평온함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불이 떨어지는 북판에서도 너희는 그분의 서늘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추위 속에서는 그분의 따뜻함을, 어둠 속에서는 그분의 빛을, 비탄 속에서는 그분의 위로를, 공포 속에서는 그분의 용기를, 나약함 속에서는 그분의 힘을, 큰 고난 속에서는 그것을 덜어 주시는 그분의 기묘한 위로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주님의 영' 이 당신의 모든 선물과 함께 너희 위에 내려오시도록, 너희의 기도를 나의 기도와 일치시키라고 권한다.

오소서, 오, 성령님, 오셔서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어서 빨리 오소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대환난기에, 오셔서 저희를 '두 번째 성령 강림'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희 눈이 당신의 더 없이 크신 기적을,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 1)이 열리는 그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소서. **M**

(위의 내용은 다락방 기도회 창설자이신 스테파노 고펀 신부님에게 1973 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고-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 성지순례

## 성모님 발현 32주년 기념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성지 순례

일시: 2013년 6월 22일 ~ 7월 1일 (9박 10일)

경비: New York JFK공항 출발 \$2,450 (선착순 15명)

## 메주고리에 국제 청년 대회, 드브로브닉, 이태리, 루르드

일시: 2013년 7월 24일 ~ 8월 6일 (13박 14일)

경비: New York JFK 공항 출발 \$3,950 (선착순 25명)

## 젊은이들의 미동부 지역 성지순례 및 여름 캠프

- 신앙의 소중함과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피정 - 매일미사와 강의 및 성시간

일정: 2013년 8월 10일 - 8월 17일 (7박 8일) (참가인원 30명 제한) / 경비: \$ 1,180

지도신부단: 박창득 몬시뇰, 잔맥페든 신부, 이재화 신부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성지 방문: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성당, 성베드로와 바오로 필라델피아 주교좌 대성당, 스키타린 드렉셀 슈라인, 성 뉴만 기념성지, 미국 독립 기념관, 자유의 종, 성비오 신부 박물관 및 기념센터, 성 패트릭 성당, 성가정 대성당, 파티마 푸른군대 슈라인, 블랙마돈나 슈라인, 아메리카 가톨릭 대학교,

지역 방문: 백악관, 국회의사당, 박물관, 그라운드 제로 박물관, 락펠러 센터, 엠파이어스테이트, 센트럴파크, 어머니 마을과 평화의 모후 선교회 피정의 집 등등...(Youth Activities, Whitewater rafting, Horseback riding, Paint Ball, Rock climbing, Farewell and Mother's Village Camp Fire etc.)

문의: 610-366-9613 / 917-626-4314 (cell) / E-mail: [qpmm.org@gmail.com](mailto:qpmm.org@gmail.com) / [www.qpmm.org](http://www.qpmm.org)

자세한 일정은 평화의 모후 선교회 홈 페이지 ([www.qpmm.org](http://www.qpmm.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인류에게 내 자비를 보낸다.

## 성녀 파우스티나의 삶과 사명

2000년 4월 30일 로마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 불리는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를 시성하셨다. 이로써 교황은 온 세상과 교회 앞에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느님 자비의 신비를 선포하고 삶으로 옮기는 일과 세상을 위해 그 자비를 탄원할 임무를 그녀의 소명으로 부여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1905년에 폴란드의 우츠 근처에 있는 글라고비에츠에서 어머니 마리 안나와 아버지 스타니스라우스 코발스카 사이의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성녀는 어린 시절부터 기도에 대한 열정과 일에 대한 근면성, 그리고 순종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이 특별했다. 가난으로 인해 초등학교 3학년도 채 다니지 못한 그녀는 이미 십 대에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다. 20세에는 자비의 성모수녀회에 입회하여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로서 주방, 정원사, 문지기의 소임을 하며 매우 평범하게 보이는 13년을 보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라는 비범함이 숨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훌륭한 성인이 되기를 열망하였다. 자신의 삶을 죄인들을 위한 희생으로 내어 놓고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시종 일관 노력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수도자로서의 그녀의 생애는 비범한 신비적 은총과 더불어 고통의 흔적도 드러난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시대에 나는 내 예언자들로 하여금 내 백성에게 천둥 번개를 휘두르게 했다. 그러나 오늘은 너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내 자비를 보낸다. 나는 인류를 벌하지 않고 치유하고 내 성심 가까이 데려오고 싶다"(일기 1588)는 놀라운 선언을, 비범한 단순함으로 하느님께 무한히 의탁했던 바로 이 수도자에게 하셨던 것이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 \* 성서에 드러나 있는 우리 신앙의 진리, 즉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베푸신다는 진리를 모든 인류와 심지어 극악한 죄인들에게까지 상기시키는 것.
- \*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새로운 신심을 전하는 것.
- \*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의 기본 정신을 따라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을 신뢰하며 이웃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 정신으로 쇄신된 삶을 위한 위대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

이상과 같은 사명을 수행하고, 특히 죄인들을 위한 희생으로 참아 받았던 폐결핵과 여러 고통으로 쇠진해진 파우스티나 수녀는 33세의 나이로 1938년 10월 5일 크라코우에서 성스러운 향기 속에 선종하였다. 993년 예수 부활 대축일 후 첫 주일인 4월 1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그녀를 복녀로 선언하셨다. 그 다음날 공개적인 알현에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서는 복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의 영성적 부요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오셨습니다. 그녀는

하느님 자비의 위대한 메시지와 창조주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게 하는 동기를 세상에 남겨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녀에게 당신과의 신비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리고 관상기도라는 특별한 은총으로써 그녀가 당신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뚜렷한 선물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복녀 파우스티나는 감사하게도 '놀라운 신비'이며 '성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인 하느님의 자비심에 대한 위대한 신비를 세상에 상기시켜 주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 하느님 자비의 상(像)

파우스티나 수녀는 1931년 2월 22일에 '하느님 자비의 상'을 환시로 보았다. 그 환시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상이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글을 넣기를 강하게 열망하셨다. 이 상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분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다. 그리고 옷에 가려진 그분의 꿰뚫린 심장으로부터 두 가지의 붉은 빛과 옅은 빛이 발산하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 여쭙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옅은 빛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나타내고, 붉은 빛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의미한다. 이 두 빛줄기는 십자가에서 창에 찢린 내 심장이 열렸을 때 내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일기 299)

이 두 빛줄기는 성사들과 예수님의 찢리신 옆구리에서 탄생한 교회, 그리고 성서에서 물이 상징하는 성령의 선물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이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의의 손길도 그들을 붙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일기 299)"고 말씀하셨다. 이 상본은 하느님의 위대한 자비를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자비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며 교회 안에서 성사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이 상본은 은총을 얻기 위한 그릇이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느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임을 상기시키는 표지이다. 이 상의 아랫부분에 쓰인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은 의탁의 자세를 말해



준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이 상본은 내 자비의 요구를 상기시킬 것이다.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일기 742) 이 상본에 대한 공경은 자비의 행위와 함께 바치는 믿음을 가진 기도에 기초를 둔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상본을 공경함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원의 은총, 완덕에 이르는 은총, 행복한 임종의 은총,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은총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분께 의탁하며 청하는 현세의 축복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릇을 하나 주는데 그들은 그 그릇을 가지고 자비의 샘에서 은총을 길으러 올 것이다. 그 그릇은 바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이 쓰여진 이 상본이다." (일기 327)

"이 상으로 나는 영혼들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들이 이 상에 나아오도록 하여라." (일기 570) "나는 이 상을 공경하는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을

## 내 자비에 대하여 세상에 말하여라.

모든 인류가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깨닫게 하여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이다.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특히 임종의 시간에 원수를 누르고 승리할 것을 또한 약속한다. 내가 친히 그들을 내 영광으로써 지킬 것이다."(일기 48) "자비의 불꽃이 나를 태우고 있다. 나는 이 자비를 모든 영혼들에게 부여주고 싶다. 오, 그들이 내 자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을 때 나에게 얼마나 심한 고통을 주는지...! 앓고 있는 인류에게 나의 자비로운 성심으로 가까이 달려들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나는 그들을 평화로 채울 것이다."(일기 1074) "인류가 신뢰를 가지고 내 자비에 의지할 때까지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일기 300) "내 자비에 대하여 세상에 말하여라. 모든 인류가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깨닫게 하여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표징이다. 이것이 지나면 정의의 날이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이 내 자비의 샘에 의지하게 하여라. 그들을 위해 쏟았던 내 피와 물의 공로를 입게 하여라."(일기 848) "나는 공정한 심판관으로서 오기 전에 먼저 내 자비의 문을 활짝 연다. 내 자비의 문을 통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내 정의의 문을 통과해야만 한다."(일기 1146)



성당 제대 왼쪽으로 예수님 자비의 그림 원본과 파우스티나 성녀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축일의 위대함은 모든 사람, 심지어 바로 그날 회개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청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되기만 하면 어떠한 은총도 얻을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상이 부활 대축일 후 첫 주일에 장엄하게 축성되기를 바란다. 그 주일은 자비의 축일로 제정될 것이다." (일기 49) "내 자비의 축일이 모든 영혼, 특히 불쌍한 죄인들의 피난처, 은신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 날 나의 부드러운 자비의 심연이 열릴 것이며, 내 자비의 샘으로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의 전 대양(大洋)을 쏟아 부을 것이다.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영혼은 죄와 벌의 완

전한 용서를 얻을 것이다. 그날 은총이 흘러내리는 거룩한 수문이 모두 열린다. 지은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죄인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라." (일기 699) "내 자비의 축일은 온 세상을 위한 나의 위로의 심연에서 나왔으며(일기 1517), 나의 부드러운 자비의 광대한 심연에서 확증된다." (일기 420)

### 하느님의 자비 축일과 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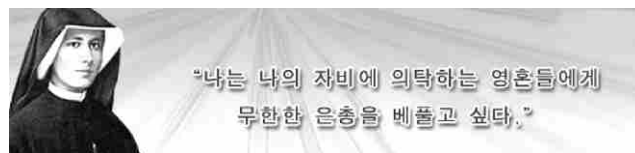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자비 축일이 부활 후 첫 주일에 거행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구속이라는 부활의 신비와 이 축일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이날의 전례는 하느님 자비의 신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그 분을 찬양한다. 자비 축일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하여 흠승을 드러내는 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죄인들을 위한 은총의 날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축일에 위대한 약속들을 덧붙이셨는데 가장 큰 것은 이날 영성체할 때 얻게 되는 은총이다. 그 약속은 바로 죄와 벌에 대한 완전한 용서의 약속이다. 다시 말해 이 은총은 세례성사에서 우리가 받는 것과 동일하다. 이

###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심의 전파

"나는 내 자비의 영광을 전파하는 영혼들의 전 생애를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보살펴 줄 것이며, 그들의 임종시에 나는 심판자가 아닌 자비로운 구세주로 그들을 대할 것이다." (일기 1075)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흠승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M**

( <http://예수.kr> 에서)





어머니의 고통에  
비유할 고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자 :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이 : 남기옥 마르타



**질문 : 낙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조신부 :**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폭력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자신의 아기를 스스로 낙태할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적어도 이렇게 말

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생명을 죽이지 말고 제게 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제가 사겠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산부인과 의사가 해야 하는 말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그 생명을 데리고 제게 오는 일만 남았어요. 저희가 그 아기의 요람을 준비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절대로 죽이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그 잔인함이란!

**질문 : 미혼녀들이 낙태를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조신부 :** 각각의 경우가 다르지만 먼저 다른 이를 향한 존경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매스미디어와 정치 사회 전반에서 사회가 이를 도와야 합니다. 실업자가 만연하고 충분한 주택도 없고, 물가도 비싸서 인구 증대를 막아야 한다고 아무 대책도 없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유를 누리 고 싶다, 여성해방이다." 여성이 창조보다는 파괴에 앞장 설 때, 무섭고 절대적인 어둠이라고 표현되는 모성의 단절

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됩니다. (마태오 21, 19-21, 마르코 11, 13-20) "생명 반대"를 주장하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제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런 여성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눈에 빛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태중의 아기를 축복해 달라고 저를 찾아오는 여인들을 보면 무한한 은총이 함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놀라운 신비의 생명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하느님께 봉헌할 때 전적으로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 하지만 한 여성이 생명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몸 안에 커가고 있는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파괴를 향한 질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와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혼미함 속에서 자신을 잃은 상태라고 할까... 금화를 잃고서 정신없이 그것을 찾아 헤매는 성경 속의 여인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루카 15, 8-10) 그러나 성경의 여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낙태한 여성은 버린 생명을 되찾고 싶어도 흘러간 물과 같아요. 온 집안을 털면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자신이 버린 생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원해서 살해한 아이의 생명과 모성을 돌려달라고 떼를 써봤자, 마음의 자유나 영혼의 따스함, 내적인 자유는 이미 낙태를 통해 사

라졌어요. 한 여성이 영적인 균형과 감정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모성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절망감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 시대만큼 여성들에게 힘든 시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유방임주의는 삶의 방식과 자유를 향한 허황된 꿈, 인간이 전능하다는 식의 생각들을 발상시켰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 자신들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면 병든 것이고 결국 교회도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에게 관심과 기도, 사랑 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피정을 지도하면서 남성과 여성들이 똑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힘을 얻도록 제시하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반응이 적습니다. 남성들은 솔직하게 나서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면을 선호해요.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용감하고 솔직하게 말하지요. "이 길이 나와 내 자식들과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면 나는 당연히 이 길을 택하겠어요. 내 삶의 방식과 부딪치더라도 말이죠." 저는 이런 용감한 여성들을 볼 때 의기충천해집니다.

**질문 :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조신부 :** 여성들도 교회에 참여하고 성체를 분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성에게 맡겨진 성소는 위대하고 여성이외에 아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없어요. 여성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키우고 교육하며, 성장하도록 보호합니다. 여성은 신비이고, 동정 마리아처럼 교회의 영혼입니다. 저는 항상 여성들을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봅니다. 여성을 향한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도록 초대하는 것이지요. 완전함입니다. 그 완전함이란 무엇인지 아세요? 완전함은 어머니, 즉 여성의 완전함이며 깨끗함입니다. 완전함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마음이 개방되고 거룩한 여성들, 신심 깊은 여성들의 남편들은 교회에 돌아옵니다. 여성이 병들었을 때 남편들은 여성을 버리고 그 교회도 버립니다. 여성이 정신적으로 병들었을 때 절망에 빠져서 교회를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고 문제의 해결책을 얻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시도이지요.

**질문 :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싶은 여성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조신부 :** 맞습니다,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혹시 구마예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질문 : 네, 알고 있습니다.**

**요조신부 :** 맞아요. 지옥과 싸우는 무서운 일이지요. 지옥을 이길 수 있고, 이겨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끔 악마는 민첩하고 영악한데도 인간이 지나치게 나약해서 악마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악마야 썩 물러가라!"하고 명령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병든 사람들은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겪고 있는 유혹을 물리칠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돌아온 작은아들처럼 밑바닥 생활까지 해본 뒤 (루카 5, 11-32),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치유를 구할 힘도 없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치유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성들은 고통당하면서도 침묵하고 특히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 더욱 침묵합니다. 엄마로서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침묵하지요…… 그러다가 몸이 병들어 지쳤을 때, 무엇인가 자신 안에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화산처럼 끽끽거리며 담아 두었던 자식들과 자신의 불만족한 결혼생활, 친구들과 세상 전체를 향한 말과 비난, 비판, 증오심들이 분출됩니다. 어머니의 고통에 비유할 고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다 알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제 영혼이 느끼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사람들이 신부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요조신부 :**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치유 등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저분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치유될 것이야." (마태오 9, 20-22; 마르코 5, 24-34; 루카 8, 43-48). 그 여인은 의사들을 전전했지만 도와준 이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치유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믿음으로 했어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깨워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명하면서 사제를 만난다면 그 믿음을 알아본 사제는 그에 맞는 응답을 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시오.

## 메주고리예에서 사제성소를 받은 젊은이들이 전세계 교구에 있습니다.

니다. "환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이들을 부활시키며, 나병 환자들을 깨끗이 해주고, 악마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무상으로 받은 것은 무상으로 주어라." (마태오 10, 8) 지금 세계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르친 뒤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와 마음을 통해서 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감시하고 잡아넣어 죽일 궁리만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 12, 2; 12, 10; 마르 2, 24; 3, 4; 6, 2; 루카 6, 2; 6, 9 요한 15, 8)

### 질문 : 왜 서양에는 이런 성소가 부족할까요?

**요조신부 :** 여성들에 대한 억압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더는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도도 사라지고 교회를 사랑할 장소도 사라지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육도 사라지는데 왜 성소가 위기에 처해있느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성소는 우연히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젊은이의 머리 위에 갑자기 운석이 떨어져서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 생활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사회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되려고 하면서 제대에 속한 생활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사회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뒷전으로 밀려나서 개인의 영역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의 생활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더 이상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를 더럽히는 스캔들 같은 소식들을 무자비하게 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매스미디어들은 사제 성소가 얼마나 훌륭한 가치를 지니

고 있는지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훌륭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계시지만 프랑스 매스미디어에서는 그들에 대해 절대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불행한 어떤 스캔들이라도 일어날라 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대서특필하고 뉴스를 만드느라 야단법석이지요. 사제의 모습을 흐리고 수도자와 사제 성소를 위한 기도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제 성소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성소의 또 다른 위기는 현 시대의 사회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활 속에 교회보다 더 강력한 매력으로 자리 잡은 것이 음악, 스포츠, 문화, 유희 등입니다. 메주고리예에 찾아오는 젊은이들은 가끔 교회와 하느님의 멋진 모습, 기도의 놀라움과 신비한 아름다움, 성체 성사와 고해성사의 능력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멋진 일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제는 하느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동반하고, 무지의 장막을 걷어내어 어둠과 의심을 풀어주면서 하느님의 형상을 기쁘게 보여주는 이들이라는 것을 깨닫죠. 하느님이 보인다고 말하게 되는 사실은 은총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찾아와 신앙을 경험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제가 됩니다. 메주고리예에서 사제 성소를 받은 젊은이들은 전 세계, 전 대륙에 걸쳐 전 세계 교구에 퍼져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절대로 과장되지 않았습니니다. 이곳에서 사제성소에 응답한 젊은 사제들을 모이게 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서 현대의 젊은이들이 이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부릅니다. 중요한 거죠. 가정이 죽는다면 교회에 생명을 이어 줄 수 없으며 희생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지도 못합니다. **M**

(다음 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 실터

오, 주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등불이신 어머니,  
모든 이의 유일한 구원자, 세상의 진정한 빛이신 주님께 이끌려 주소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 전구해 주시고, 여전히 형제애를 실천하지 못해 분열 속에 살아가며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은 세상이오니, 평화와 위로를 얻어주소서.  
오 자애로우시고 감미로우시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의 애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 교황 바오로 6세의 기도 중에서 -



# 메주고리예의 10가지 비밀

저자 :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 이 : 남기옥 마르타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는 10가지 비밀은 시작되기 10일 전에 피터 루비치 신부에게 메시지를 알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와 단식을 한 후 비밀이 시작되기 3일 전에 피터 신부가 이를 세상에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미리야나를 대신하여 10가지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받은 피터 루비치 신부는 이 비밀에 대하여 이태리의 '메주고리예 마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 두 비밀은 메주고리예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메주고리예 마을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미리야나는 제게 말했습니다."

피터 신부는 세 번째 비밀은 메주고리예 발현언덕에 성모님께서 주시는 표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메주고리예의 여섯 목격 증인들 모두가 이 영원한 징표는 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징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는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피터 신부와 목격 증인들은 말한다. 또한, 피터 루비치 신부는 이 비밀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이 메주고리예에 오게 될 것이며 가톨릭 교회와 전 세계에서 메주고리예 발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리야나와 피터 루비치 신부

"저는 이 비밀이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모두 좀 더 진지해지고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원한 징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회개와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정화의 시기이며 하느님을 선택하는 기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그 징표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회개를 미룬다면 너무 늦어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마다 수천수만 명의 순례자가 메주고리예로 오고 있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면 지금까지 전혀 이곳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성모님 발현의 역사는 우리가 커다란 위험 앞에 있을 때마다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 오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메주고리에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곳은 더욱 영적인 자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이 드러남으로써 이것이 교회의 인준에도 분명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영적 정화의 시기이며 하느님을  
선택하는 기쁨의 시기입니다.

피터 신부는 비밀에 대한 많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도, 비밀들에 대한 미래의 사건들 보다는 현재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의 비밀에 대해 지나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데 인터뷰의 초점을 맞추었다.

"비밀은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비밀들이 미래의 어떤 장소, 어떤 때에 일어날 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지 비밀의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밀에 대해 깊이 알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우리와 우리 영혼 구원의 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고, 하느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성모님께서 목격 증인들에게 처음 발현하신 발현산에 영원한 징표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며 성모님 발현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목격 증인들은 말하고 있다 -

이므로 비밀이 시작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그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며 기도로써 축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언제나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 발현의 역사는 우리가 커다란 위험 앞에 있을 때마다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150년을 되돌아보아도 우리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염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이 우리에게 발현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M**



**태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묵주기도 5단을  
봉헌해주세요.**

- 태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 낙태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 낙태 종식을 위하여...
- 낙태한 부모들의 치유를 위하여...

## 믿음의 눈으로 성모님을 뵈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 발현 목격 증인 마리아 파블로비치 루네티 (3) —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번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질문 : 마리아, 이곳의 발현이 성모님의 마지막 지상 발현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마리아 : 성모님께서서는 이번이 지상에서 우리가 당신을 만지고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당신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마리아 : 비밀들이 실현되고 나면, 성모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질문 :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마리아 : 아니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평화의 모후'로서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 주고, 우리를 하느님께로 데려가고자 여기에 계십니다.

질문 : 마리아, 당신 경우에는 그렇게 믿기가 우리보다 쉬겠지요. 당신은 성모님을 뵈 수 있으니까요.

마리아 : 성모님께서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 우리가 어떻게 성모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나요?

마리아 :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모님을 뵈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뵈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리아 : 성모님께서 그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질문 :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눈으로 직접 성모님을 뵈게 된다는 뜻입니까?

## 성모님께서는 이번이 지상에서 우리가 당신을 만지고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 저는 그 질문에는 결코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질문 : 마리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모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 :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당신도 믿음의 눈과 귀로 성모님을 뵈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질문 : 우리가 믿음의 눈과 귀로 성모님을 뵈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까?

마리아 : 단순하게 시작하십시오. 특별한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질문 : 우리에게 권해 주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까?

마리아 : 발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적어도 '사도신경'에 이어 '주님의 기도' 일곱 번과 '영광송' 일곱 번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코 하루에 그렇게나 많은 기도를 할 시간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늘 기도하고 싶어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믿음도 더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당신은 하느님과 성모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믿음의 눈과 귀로 보고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마리아, 여러 해에 걸쳐 매일 성모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꼭 말해 주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 : 성모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내고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느님을 진실로 믿기를 바라십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곳에 계신 것입니까?

마리아 : 성모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시며,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메주고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마리아 : 성모님께서는 메주교리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

가 천국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질문 :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마리아 :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꼭 제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저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의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인도해 주십니까?

마리아 : 하느님께서는 매우 분명한 방향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순간 순간, 언제나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명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느님께 의탁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 처음에 당신이 기도하고 성모님의 메시지에 응답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지는 않았습니까?

마리아 :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질문 : 징벌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 중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마리아 : 저는 징벌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 에이즈가 하느님께서 내리신 징벌일까요?

마리아 : 성모님께서는 에이즈에 대해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이즈가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인지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에이즈와 관련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결혼 전 순결과 결혼 후의 정결함, 우리 관계의 순결함, 그리고 마약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등입니다.

질문 :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리아 :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따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질문 :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아 : 저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마약에 중독되었고,



우리는 지상의 삶이  
우리가 누리게 될  
삶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그룹이 이탈리아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 그룹의 몇몇은 성모님의 메시지에 응답하며 기도와 단식, 건강한 생활과 들판에서 노동하는 것에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손으로 열심히 일했고, 자연이 준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며, 밤에도 잘 잤습니다. 수녀님 한 분이 그들을 돌보았는데, 그 수녀님은 모든 육체적 습관과 기도 습관에서 엄격한 규율생활을 매우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몇 개월을 생활한 후 그 젊은이들을 검사했을 때, 그들 모두 에이즈를 앓은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기도하며 단식하지 않고, 육체노동을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여전히 에이즈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에이즈에 걸려 있는 그 젊은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의사들은 아무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은 기도에 전념했고, 기도생활을 더 깊이 할수록 에이즈 때문에 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질문 : 당신이 에이즈 피해자들과 함께한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리아 : 기도하며 지내지 않았던 젊은이들은 죽었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남으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도 마약을 주고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면,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당신 몸과 장기들이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병입니다. 에이즈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 바라시는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메시지라 하겠습니까.

질문 : 마리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마리아 :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에이즈 환자들과 함께 이탈리아에서 기도생활을 하고부터입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에 응답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질문 : 이탈리아에서 보낸 시간 중 또 이야기해 줄 것이 있습니까?

마리아 : 가끔 텔레비전을 볼 때 다양한 상업광고들, 특히 에이즈 예방광고를 보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는 에이즈를 예방하는 데보다는 물건을 파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에이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런 광고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더욱 더 돈을 내고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의탁해야 합니다. 오직 그 분께서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질문 : 마리아,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리아 : 우리는 결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특히 아픈 사람을 내치거나 고립시키고 그들을 돌보기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 의사가 예방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마리아 : 우리는 결코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층으로 올라가 발코니에서 몸을 던지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분별력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루르드 같은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각지에서 병자들이 와서 그곳에 있는 물에 몸을 담급니다. 그러나 아무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루르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질문 :** 전염성이 있는 질환을 다루는 의료진이 예방책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마리아 :**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하느님을 믿고 저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느님께서 저를 돌봐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제가 그분께 순명하기를 원하시며, 많은 사람들, 의사들을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리아 :** 우리는 모두 마음과 영혼이 옳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깊이 기도할수록 하느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남자를 봤을 때, 그냥 도망가면서 "싫어요, 그 사람은 환자예요. 그 사람은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저를 보호하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죽게 놔두세요."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삶이 우리가 누리게 될 삶 전부 아니며, 또한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천국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모든 일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M**

(다음 호에 계속 연재 됩니다.)

## 믿지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발현 목격증인 마리아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어머니로서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갖지 말고 새로워지라고 너희를 부른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사랑으로 보내시는 경고들을 보고 눈을 감지 마라.  
너희는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느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대한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자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느냐?  
너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회개하느냐?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라. 평화와 희망을 거부하지 마라.  
너희의 기도와 단식과 함께 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를 지배하려는 어둠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써, 너희는 죄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죄인에게 축복과 희망이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깨어 있어라.  
나는 어머니로서 너희와 함께 깨어있다.  
특별히 나는 너희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빛을 밝혀주도록 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너희 목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켜주고 있다. 고맙다."

2013년 3월 2일 성모님의 메시지

(마리아나는 성모님께서 그곳에 모인 이들을 축복하시며 갖고 온 모든 성물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전하였다.)





## “여기는 천국이야.”

크리스마스 11일전인 12월 14일 금요일 아침 9시 38분이었다. 미국 커네티컷주 뉴타운시 샌디 후크 초등학교 20명의 아름다운 아이들이 천국의 문을 향해 달려 들어왔다. 아이들은 이른 아침 그 날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의 밝은 미소와 커다란 웃음소리는 점점 퍼져나가서 천국을 가득히 채웠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리둥절해 있었다.

그 중의 작은 소녀가 아주 낮은 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어딜까?” 옆에 있던 작은 소년이 대답했다. “여기는 천국이야.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는 거야.”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는 아이들의 눈앞에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아이들은 모두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셨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천진한 미소가 가득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양손을 벌리시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셨다. 그 순간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평화와 기쁨이 아이들을 감쌌다. 모든 아이들은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양팔 안으로 달려들었다. 예수님의 따뜻한 품속에 안겨 있던 한 작은 소녀가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예수님은 소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문을 이미 알고 계신듯이 미소를 지으시고 부드럽게 속삭이셨다. “너희 엄마와 아빠들은 내가 돌보아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멀리 아래에 있는 세상의 한쪽 땅을 내려다 보셨다. 그곳에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

이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시름에 잠겨있는 부모들과 가족들이 보였다. 측은한 눈빛으로 그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던 예수님이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손을 펼치시며 말씀하셨다. “나의 능력과 현존함으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어리석은 이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나의 나라와 사람들을 다시 찾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이리 오렴, 내가 천국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모두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다. 기쁨과 흥분에 휩싸여 다름질을 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모든 아이들의 얼굴에는 어린이의 선함과 열망이 가득차 있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으셨다. 그리고 나는 서서히 멀어지시는 예수님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M**

( 이 기사는 Mt. Poconos, PA의 조앤과 안토니 부부가 보내주셨습니다. )



미국 커네티컷 주 뉴타운 샌드후크 초등학교에서 총격사건으로 죽은 아이들의 기념공원

# "예수님은 정말 하느님이시구나!"

- 성체와 묵주기도 고해성사의 은총 -



— 제 67차 순례자 김마리아 / 아리조나

저는 오랫동안 냉담기를 보냈습니다. 냉담의 기간도 하느님을 찾기 위해 영적인 곳이면 어디든지 (각종 종교, 명상, 단학등등.) 기웃거리며, 거의 하느님께 가까이 갔다고 생각했는데도, 항상 무언가가 빈듯한 그곳들을 바라보며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는 다시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갈증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성모님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제 영혼을 울렸고 무더진 마음을 회개하기 위해 생전 처음 묵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두렵기만 했던 회개의 용기를 얻어 고백소에 들어가 고해성사를 보고 매일 미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해와 영성체를 꾸준히 하면서 성체로부터 영적인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은총, 평화를 얻는 은총, 제안의 교만을 보는 은총,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총,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은총... 그러나 가장 큰 은총은 성체로부터 오는 믿음의 은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 왜 이제까지 그걸 몰랐지? 스스로 의아해하며 그 순간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 자신에게 증언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도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믿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 순간의 확신은 저의 그동안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저

는 그것이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도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자주 성체를 영한 후에 생긴 믿음이어서 성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베푸신 은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현재 우리와 같이 살아 계시다는 믿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 책과 사람들처럼 부차한 설명도 없으십니다. 그저 내 안에서 '예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짧은 한마디 성령의 말씀이면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 후에 천주교인이 친구들이나 주위 분들과 성경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라는 확신을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느님을 각각 별개로 믿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우들끼리도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라고 믿음으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신 분들은 언제나 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엘리사벳, 시메온, 세레자 요한, 공생활 중 베드로의 짧은 증언 모두가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며 믿음 안에서 증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활 동안 같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알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삶 안에서 였으며 성체성사로 살아있는 살을 받아 모시고 후에 성령강림의

빛으로 비로소 내면으로부터 믿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느껴진 순간은 최근의 '다빈치코드'라는 책과 영화가 나왔을 때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당연히 강한 호기심에 예수님에 관한 다른 학설이 있나? 하고 몰래 책과 영화를 기웃거리고 믿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호기심도 들지 않았으며, 도무지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악한 세력의 유혹들을 알게 되었고, 더 더욱 이 믿음을 굳건히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표징은 우리를 믿게 하지 못하며 빵인 주님의 몸을 먹는 자만이 비로소 주

님을 알아보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대한 증언을 우리의 영혼 안에 새겨 주시게 됩니다.

자주 고해성사를 보시고 성체를 영하십시오...

그리하여 준비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실 수 있도록...

저는 성령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평생 어린양이셨던)을 묵상하면 성령은 더 작은 어린 아기와 같이 단순하고 작고 겸손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에는 나이가 든 할아버지의 목소리처럼 여겼지만,) 그래서 성령의 작은 목소리를 더 귀기울여 들을 수 있으려면 작은 어린이의 동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M

(<http://peace.new21.net/> 에서)

Queen of Peace Missionaries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라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의 발행을 위하여 형제자매님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냉담하시던 분들과 어려움속에서 성모님의 사랑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묵주기도를 하게 되신 분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격려의 편지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평화의 모후' 소식지가 정기적으로 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가톨릭 비영리법인이며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p><b>미국</b></p> <p>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br/>16 Kathy Ct,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br/>은행 / Wells Fargo Bank<br/>301 East Main Street, Macungie, PA 18062<br/>Acct. # / 2000012394184<br/>S.W.I.F.T. CODE / WFBLUS6S<br/>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p> | <p><b>한국</b></p> <p>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센터<br/>은행 / 농협은행<br/>계좌 / 351-0404-6506-03<br/>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센터<br/>070-8125-9434</p> |
|---|---|

**E-mail: [qpmm.org@gmail.com](mailto:qpmm.org@gmail.com) / 홈페이지 [www.qpmm.org](http://www.qpmm.org)**



# 다시 묵주 기도를 시작하여라

포르노 중독을 치유시켜 주신 메주교리에 성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너희가 기도하도록 초대한다. 평화를 위해 기도 하여라. 사탄은 강하다. 그는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자연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도 파괴하려고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그러면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축복으로 너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내 도움을 바라거든, 묵주를 꼭 쥐어라. 묵주기도만으로도 이 세상과 너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와 머물기를 원하시는 한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믿어 주어서 고맙다. 너희의 응답이 선과 평화에 도움이 되기에, 너희에게 감사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91. 1. 25 성모님의 메시지)

처음에는 친구의 집 지하실에서 친구 아버지의 플레이 보이 잡지를 훔쳐 보는 것으로 만족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25살이 되었을 때, 나는 완전히 인터넷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몇 해에 걸쳐 포르노 중독을 끊어 보려고 나름대로 무척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르노를 보지 않겠다는 노력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었으며 결국은 포르노를 보지 않고 살 수 없는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포르노 중독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 한 사람이 메주교리에 성모님 발현에 관한 책을 한 권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모님 발현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그 책을 받은 후부터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저는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주교리에 성모님은 그 책을 통하여 19년 동안 포르노에 중독되어 살아온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그 책의 첫 장부터 당신의 손을 내밀어 내 옷깃을 붙잡아 당기셨던 것입니다. 나는 그 책의 첫 장을 넘길 때부터 성모님께서 단호하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라이언, 그 쓰레기들을 더 이상 보지 마라! 지금 당장!" 나를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책망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나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나이 30이 된 나를 복되신 성모님께서 전에는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 스카폴라를 네 몸에 지니고 묵주 기도를 바쳐라!

"성모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끼고 책장을 넘기며 성모님께 물었습니다. "스카폴라를 네 몸에 지니고 묵주 기도를 바쳐라."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투덜거렸습니다. "묵주 기도라고요? 언젠가 한번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묵주 기도는 너무 지루해서 나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이런 나의 투덜거림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막무가내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묵주기도를 시작해 보아라." 저는 성모님의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폴라는 것은 또 뭐니까?" 나는 스카폴라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카폴라? 나는 그것이 중세기 때 수도승들처럼 면도로 머리꼭지를 밀어내라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칼프'는 '머리꼭지'라는

**묵주 기도를 시작한 첫 날 부터 19년 된 포르노 중독증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 나는 머리를 밀어 버릴 수는 없어요." 나는 계속 책을 읽으면서 그것은 부끄럽게도 내 무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오, 성모님, 스카폴라를 착용할게요." 그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갈색 스카폴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침실 장롱 서랍 속에 두었던 할머니가 쓰시던 옛날 묵주를 꺼냈습니다. 묵주는 할머니의 다른 유산들처럼 서랍 깊은 곳에서 수년간 잠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밤도, 나는 또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틀 밤이 사흘이 되고 사흘이 나흘이 되었을 때, 어느새 일주일 내내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르노 중독을 치유시켜주신 메주고리에 성모님**

이 이야기는 벌써 7년 전 이야기이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포르노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악습이 어떻게 끊어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악습은 내가 노력해서 서서히 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 책을 읽고 묵주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19년 된 포르노 중독증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누군가 내 뇌 속에 손을 넣어 포르노 중독 스위치를 꺼준 것처럼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분야의 치료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그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19년간의 포르노 중독이 지난 신문처럼 하루 아침에 집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르노 중독은 대부분 사진을 볼 때마다 뇌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일종의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작용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을 하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처럼 기분을 고쳐시켜 줍니다. 에피네프린은 계속 솟아나는 샘물같이 마치 사람의 뇌 안에서 불타는 환시를 보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20대 후반에서조차 11살 때 처음 본 그 포르노 사진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묵주기도를 하면서 순식간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묵주의기도를 바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성모 마리아께서는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묵주기도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성모님을 돕는 길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이 걱정하실 일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일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성모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청하며 묵주기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성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M**

(<http://blog.daum.net> Faith at the Edge에서)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발행/편집인 : 박창득 몬시놀
- 지도신부 : 박창득 몬시놀 (뉴약대교구)
-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 웹관리자 : 박 어거스틴
- 편집위원 : 남 미카엘라, 김성주, 박 소화 데레사, 최 레지나
- 인쇄 : 동방인쇄출판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Tel. 070-8125-9434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선주, 강지우, 권성순, 고민자, 김건일, 김금성, 김노원, 김단심, 김테레사, 김마데라, 김마리아, 김미형, 김보희, 김성인, 김수도다윗, 김소진, 김송태, 김숙자, 김숙희, 김안나, 김영숙, 김영자, 김옥분, 김옥희, 김원경, 김정심, 김정자, 김필선, 김혜숙, 김효안, 김효정, 김홍남, 남옥현, 노혜영, 도길자, 명재혁, 맹지영, 문로사리아, 민병돈, 민영희, 민정숙, 민혜레나, 박경리, 박경희, 박마르타, 박미경, 박병칠, 박상순, 박선영, 박순덕, 박영실, 박영화, 박정선, 박정자, 박종옥, 박주현, 박카타리나, 박혜선, 반영섭, 배정희, 백광현, 백수산나, 백안셀모, 변레지나, 서남숙, 서정열, 서효심, 소정희, 손장원, 송마리아, 송종식, 신순덕, 신현철, 신혜경, 심재현, 안교정, 안마이클, 안은순, 안청자, 안춘식, 안훈, 안희숙, 양문경, 어황숙, 엄토마스, 오병길, 오세은, 오수산나, 우갑선, 원영주, 유경숙, 유공자, 유국현, 윤길자, 이경열, 이계숙, 이기선, 이다영, 이마가렛, 이마리아, 이명진, 이명훈, 이문자, 이미경, 이보리나, 이서현, 이선주, 이선지, 이성숙, 이숙자, 이순세, 이순예, 이순자, 이승봉, 이영분, 이영옥, 이옥영, 이용강, 이윤영, 이은경, 이은숙, 이인석, 이인영, 이재열, 이정민, 이정희, 이종천, 이지연, 이지은, 이진민, 이찬기, 이필자, 임스텔라, 임신자, 임효숙, 장봉쇠, 장영희, 장이분, 장종순, 장한순, 잔슨 윤숙, 전영애, 전현숙, 정명자, 정모니카, 정미선, 정의교, 정찬래, 전현숙, 조경숙, 조테레사, 조동진, 조미령, 조안나, 조영옥, 조창길, 주숙은, 지경준, 지니김, 지정해, 진도미니카, 진은필, 최경숙, 최구인, 최테레사, 최동숙, 최상옥, 최상환, 최은복, 최정신, 최종권, 최진양, 최혜선, 최희순, 친모니카, 표상순, 하정순, 하진, 한기남, 한기순, 한수지, 한옥림, 한향순, 홍선미, 홍선희, 홍용선, 홍마르타, 홍일화, 홍정옥, 홍현미, 황계자, 미네소타 평화의 모후 기도회, 키네틱 평화의 모후 기도회, 익명

Hee Lee, Eileen Cho, Chong Ae Lake, Karosas Agnes, Yang H. Lee, Lee's Family, Sun Hui Lamb, Goode Sang Sun, K. Larcenaire, Dardy Chong Suk, Joseph Choi, Henry M. Yerger, Soon Kwon, Hiusoon Choi, Steve Kim, Ui K. Shin, Sillinia Harper, Mun Cha Sim, Yon Hui Foor, Myong S. Spence, Henry Lae Ji, Eaton Chong, Mee R. Kang, Lobit Hui Suk, Gary Taphorn, Yeonki Lee, Anna Cho, Christina Lee, Chungsoon Lee, Yeonki Lee, Joung Lee, Hoison Choi, Pil Seon Zinkhen, Sue Darrington, Tak U. Lee, Yun Kim, Joo Kim, In Suk Mullins, Gerald Kim, Myung Wan Park, Lisa Rigoni, Ceclia Shim, Chong Sawinski, Thersa Ha, Andrew Kim, Peter Cho, Sun Grizzie, David Burger, Mary Lee, Ok Soon Nguyen, Moon Lee

**65호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신청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가족과 친지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성모님의 메시지와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 1동  
719-2 백상프라자 109호

캐나다

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MEDUGORJE  
2010.  
Molvarski  
čikovni krug

예수님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형제 자매님과 함께  
찬미하며 축하합니다.  
"제가 주님을 보았습니다."(요한 20.18)

평화의 모후선교회 회장 및 봉사자 일동

PRRST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5